

“ 법적소송 능사 아니다”

유공「가처분신청」에 미륭「이의신청」으로 맞대응

현대정유의 「창」과 유공의 「방패」로 대변되는 최근의 주유소 계약변경시비가 미륭상사와의 법정공방에서 정유사간 감정대립으로 급속히 비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측이 미륭상사를 상대로 낸 「자사 입간판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8월1일자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표표시제의 복수거래불가 조항에 의해 현대정유로의 풀교체는 10월19일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미륭상사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과 함께 계약의 공정여부를 판가름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유사의 정유부문 경영실적(1993) (단위 : 억원)						
구 분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합계
매출액	1992 44,477 (47,209)	28,096 (31,039)	12,049 (13,149)	18,594 (20,429)	8,167 (8,462)	111,384 (120,288)
	1993 49,170 (53,270)	31,286 (34,375)	15,184 (15,865)	18,972 (20,784)	8,636 (8,928)	123,248 (133,222)
당기순이익	1992 115 (293)	196 (462)	▽422 (▽295)	688 (772)	▽878 (▽792)	▽300 (440)
	1993 424 (354)	309 (670)	▽529 (▽293)	567 (794)	▽600 (▽486)	170 (1,038)

주) () 는 법인전체 실적

정유사별 유통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외상매출금>						
구분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합계
93.12	3,442	8,889	467	1,108	1,056	14,962
94. 1	3,672	9,092	465	1,079	1,150	15,458
94. 2	4,136	9,022	314	1,082	1,164	15,718
94. 3	4,522	9,135	457	936	1,303	16,353
94. 4	4,450	8,699	387	1,114	1,456	16,106
94. 5	4,573(4,807)	9,107	414(1,935)	1,027(920)	1,652(228)	16,773

주) () 는 받을어음

<장기대여금>						
구분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합계
93.12	2,957	1,715	1,319	1,134	101	7,226
94. 1	2,994	1,653	1,309	1,137	100	7,193
94. 2	3,016	1,653	1,347	1,144	113	7,273
94. 3	3,144	1,631	1,305	1,170	115	7,365
94. 4	3,235	1,617	1,329	1,223	119	7,523
94. 5	3,376	1,606	1,361	1,286	125	7,754

이로써 유공은 주유소계약 시비를 법정으로 비화시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당초 정부개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을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선발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상당부분 실추되는 부담을 안게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자금의 과당지원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실시조사를 얻어내는 수확을 거두긴 했지만 지원자금이 전체 유통자금으로 확대될 경우 5대 정유사 가운데 40.4%로 가장 많은 유통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유공측에도 별로 득이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이번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 수 있는 타정유사의 참여여부마저 불투명한데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이면 풀이 현대정유로 바뀔수 밖에 없는데도 불과 몇개월사이를 두고 기업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법정으로 비화시켰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공통된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율경쟁을 위한 선발기업의 역할론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가 선후발기업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호남정유를 비롯한 타정유사들도 유공과 미륭상사의 법적공방과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인 자율해결 원칙외에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향후 대리점과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유공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 국내시장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질게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미륭상사에 대한 현대정유의 지원자금을 조사한 뒤 곧바로 유공, 호남정유, 쌍용정유, 경인에너지에 대해 『대리점이나 주유소지원 실태를 파악, 정유업계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가리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따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9/5>